

Style 조선일보

MARCH 2021
vol.217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ESPACE
LOUIS
VUITTON
SEOUL

FONDATION LOUIS VUITTON
LA COLLECTION

GERHARD RICHTER

게르하르트 리히터

4900 COLOU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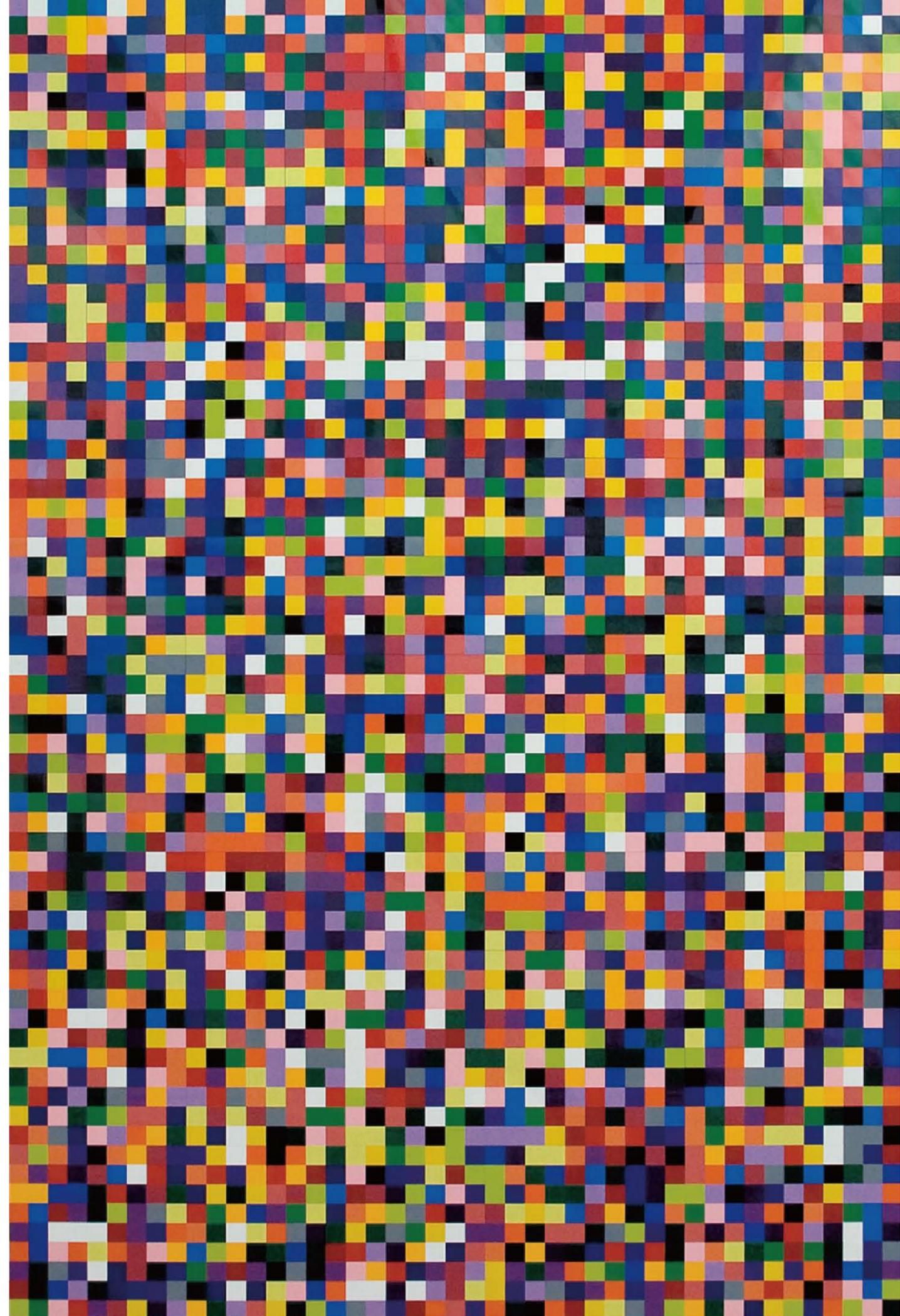
4900가지 색채

SELECTED WORK FROM THE COLLECTION

컬렉션 소장품 전시

2021.03.12 ————— 2021.07.18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Espace Louis Vuitton Seoul)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54, 루이 비통 메종 서울 4층
관람 시간: 월요일 - 일요일 12:00 - 19:00
무료 전시





12

20



반 클리프 아펠의 자프 네크리스는 혁신과 독창적 기술력이라는 메종의 근본 정신을 담고 있다. 오픈 하면 네크리스로, 닫으면 블레이슬릿으로 착용할 수 있으며 하드 스톤 및 프레스스 스톤으로 장식한 골드 디자인 또는 플래티넘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표지 속 제품은 로즈 골드에 루비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이다. 문의 1668-1906



10

- 12 **보랏빛 노을(紫霞)** 품은 동네의 남다른 행보 요즘 서울 평등동 가나아트센터에서는 '동네 아티스트(?)'들을 그려모아 소개하는 현대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다. 자문위원들의 인연을 공통 분모로 하는 가나아트센터 전시 작가 명단을 훑어보노라면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작가들이 많다. 박서보, 김창열, 유영국, 김구림 등 거장들을 위시해 미술계에서 이름값이 날라는 작가들이 포진되어 있어서다. 이쯤하여 자문위원 프로젝트인 '이 프로젝트는 자문위원들과 비영리재단, 그리고 종로구청이 함께하는 민관(民官) 협업형이라 더욱 흥미롭다.
- 15 **THE VERY BEST** 클래식한 디자인과 하이 컴플리케이션의 조화. 성공적인 한 해를 완성해줄 파페추얼 캘린더 워치.
- 16 **ORIGINALITY IN KOREAN ART** 박재현, 김한기, 김창열, 유영국, 이유환.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5인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전시가 펼쳐진다. TV CHOSUN 개국 10주년을 맞아 해아트조선과 공동 기획한 특별 기념전 '한국 현대미술 거장展: 더 오리지널'. 오는 3월 9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한국 현대미술에 의미 있는 획을 그은 5인의 작품을 1백 점 가까이 선보인다.
- 18 **WONDERFUL TIME** 손목 위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반짝이는 그 빛이 아름답다. 다이아몬드 풀 파페 다이얼 워치.
- 19 **THE ULTIMATE WORD** 하이 주얼리의 주인공은 스톤이다. 창의적인 디자인과 결합한 스톤은 그 가치를 배가하며 때를 기다린다. 시간이 흘러 그 주인이 바뀌어도 보석은 영원하다.
- 20 **ROLE PLAY** 그녀는 때보다 반갑고 신선하다. 새봄, 뉴 트렌드.
- 28 **COME BACK HOME** 향대, 실루엣 그리고 볼륨. 알렉산더 맥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세라 버튼은 감정을 불러내고 본질만 남긴 옷, 그 속에 담긴 뼈대의 아름다움에 집중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분주한 관계로 가득 찰 세상을 꿈꾸며 런던,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2021 S/S 컬렉션에 엠베서더 전지현이 함께했다.
- 32 **TIME TOGETHER** 오메가의 우수한 성능과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섬세한 디자인. 같은 듯 다르게, 다른 듯 조화롭게 연출하기 좋은 이상적인 컷을 레이어링 아이디어.
- 34 **FAIRY LADIES** 소녀의 순수함과 여인의 우아함이 공존하는 뉴 클래식 식백.
- 35 **AT YOUR PACE** 메인인 이탈리아의 정신을 담아 기능적인 우아함을 선보이는 하이엔드 풋웨어 브랜드 호건의 2021 S/S 시즌 남녀 스니커즈.
- 36 **COZY & BRIGHT** 경쾌하고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침실 스타일링 아이디어.
- 37 **CITY SCENT** 포근한 봄날, 도시의 오후를 떠올리게 하는 섬세하고 농밀한 남자의 향기.
- 38 **EDITOR'S PICK** 뉴 노멀 시대를 위한 새로운 뷰티 리추얼.

SHOULD WE
SLOW DOWN

OR

SPEED UP?

ANSWER

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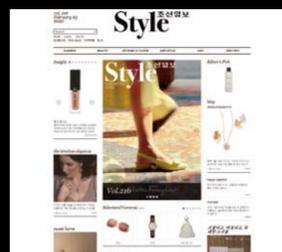
PRADA

.COM

Style 조선일보

Issue.217 March 2021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창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현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THE NEW CLASSIC

1991년 에르메스의 디자이너 앙리 도리나(Henri d'Origny)가 케아프 코드 워치의 디자인에 착안해 선보인 다투켓(Nantucket) 워치가 탄생 30주년을 맞았다. 메종을 상징하는 '상당크르' 모티브 속에 다이얼이 자리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의 직사각형 속 직사각형 케이스가 돋보이는 다투켓. 올해 워치스 & 워лд스 행사를 앞두고 선 공개한 모델은 스틸 및 골드 브레이슬릿을 장착해 보다 모던하고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자닌 것이 특징이다. 에르메스 시계 공방에서 제작한 골드, 스틸 두 가지 소재의 케이스로 선보이며 베젤과 자개 다이얼 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모델 등 다채로운 버전으로 출시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I SEE YOU

최상의 소재와 섬세한 디테일로 구현한 사다리꼴 실루엣에 견고한 톱 핸들이 특징인 펜디의 명불하전 '피카부' 백. 올해는 '아주레' 지수를 입고 목가적인 매력을 뽐낸다. 이너 포켓은 다채로운 컬러와 가죽 옵션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브라운 카프 레드 소재로 제작한 피카부 아이씨유 백 6백만엔대. 문의 02-514-0652



사랑의 속삭임

사랑에 대한 환상을 상징적인 주얼리로 그려내는 반클리프 아펩의 새로운 웨딩 밴드 두줄은 시그니처 에프칼은 메종의 섬세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고스란히 담았다. 로즈 골드로 만든 매끈한 반지 위에 7개 또는 1개의 다이아몬드를 보(bow) 장식으로 새겨 포인트를 주고, 표면에 브랜드 네임을 인그레이빙으로 새겨 상징성을 더했다. 2백만엔대. 문의 1668-1906

RED FEVER

매끈한 송아지 가죽으로 완성한 군더더기 없는 외관에 스킵 모티브와 주얼 핸들 장식으로 평범한 감성을 더한 주얼 시퀀스 백이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레드 컬러로 돌아왔다.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으로 크로스 보디백 또는 숄더백으로 연출할 수 있고, 주얼 장식의 핸들을 이용해 클러치로도 활용하는 등 다채롭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 하루 온종일 TPO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2백28만엔. 문의 02-6905-3472



WARDROBE ESSENTIAL

여러 가지 시작을 앞둔 3월, 마음을 가다듬기에 앞서 '신상 아이템' 소풍을 앞두고 있다면 기쁨 있는 이메리칸 클래식 룩을 대변하는 알프 로렌 컬렉션의 데이 드레스를 만나볼 것. 무릎을 살짝 덮는 적당한 길이의 원피스로, 허리 부분에서 교차하는 패널 장식이 특징이다. 웨이스트 라인을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동시에 통성한 플레어 디테일과 아우라져 입체적인 실루엣을 완성한다. 고급스러운 펄 그레이 컬러의 플란넬 소재를 사용하고 캡슬리브를 더해 활동성과 유아함을 두루 갖췄다. 적당한 재킷 또는 액세서리를 함께 매치한다면 오피스 룩은 물론 이브닝 웨어로도 손색없을 듯하다. 3백30만엔대. 문의 02-6004-0220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봄, 그녀에게

봄바람을 타고 온 꽃피지들. (우부터) 반클리프 아펩 프리클로 비트윈 더 링거 링 2개의 반짝이는 화관으로 연인이 주고받는 사랑의 속삭임을 표현했다.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1천만엔대. 문의 1668-1906 **다이아니 미모사 링**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손이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흔들린다. 6백만엔대. 문의 02-3213-2141 포토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정미윤



EXHIBITION

팬데믹의 격랑 속에서도 봄은 가지개를 켜고, 갤러리와 미술관 등에서는 반짝이는 전시 소식들이 러온다. 일단 차분히 이어 올봄에도 여성 작가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 세계적인 미술가로 자리 매김한 이 달의 초기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서울시립미술관(SEMA) 사소문 본관 전시 (이 불-시작) 3월 2일~5월 16일)을 비롯해 윤석남(학교재), 김민정(갤러리현대), 신민주(PKM갤러리), 오는 4월 개최하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참여 작가이기도 한 칠레 출신의 세실리아 비루라(리민어민 서울) 등 다양한 전시가 펼쳐진다. 국제갤러리가 서울(K2)과 부산에서 동시에 선보이는 로버트 메이플스프(1946~1989) 개인전 (Robert Mapplethorpe: More Life)도 눈길을 끈다(3월 28일까지). 남성 에르타스조를 비롯해 동상애, 에이즈 등 그의 사체에 금기 시되던 도발적인 주제들을 흑백사진으로 담은 팀파적 사진 미학의 아이본 메이플스프는 지구촌의 평론가들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열린 호평을 받은 동시에 일찍이 논란의 대상으로도 주목받아온 인물.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절친리에 진행 중인 기획전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도 놓쳐서는 안 될 '잇 전사'다(5월 30일까지).

FOR THE SPRING GIRL

사람스러움을 더해줄 패션 하우스의 새 시즌 헤어 스크런치.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업시 미클랑한 실크로 정교하게 제작된 비 마인드클 컬렉션의 슈슈(Chouchou), 거대한 빛도 스카프가 놓아진 디자인과 울퉁부 모그렘 패턴이 시선을 끈다. 29만엔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클래식한 투톤 리본 디테일의 실크 스크런치. 은은한 개펄로이 모티브와 브렌드 로고를 장식했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200-2700, chanel.com. 슬러의 컬러의 실크 피아피프로 연결한 화사한 프리트드의 실크 소재 슈슈 클라우다(Chouchou Caluda)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포토그래퍼 최민정 에디터 이영미



WASH OFF

투명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한 프레스티지 클렌징 솔루션. (왼쪽부터) **링클업 오일 인 젤 클렌저** 오일 타입 젤 클렌저로 잔한 메이크업까지 깔끔하게 클렌징할 수 있는 제품. 다이스크 로즈 오일과 프랑상 장미꽃 추출물을 함유해 세안 후 피부에 광채와 윤기를 더한다. 125ml 925천원대. 문의 080-022-3332 **샤넬 수블리미지 클렌징 워터** 하얀기나 추출물이 각질 세포 간의 결합을 끊어내 노폐물과 각질 제거에 도움을 주어 깨끗한 피부 청화 효과를 선사한다. 125ml 12만3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자렌시 뷰티 로 스왕 누와 클렌저** 딥 클렌징 효과를 선사하는 클레이 듀오와 청산화 효능을 지닌 바닐라 뿌리 추출물(algae) 성분 덕에 클렌징 단계에서도 스킨케어 효과를 특별히 누릴 수 있다. 175ml 16만1천원대. 문의 080-801-9500 **리프레이 크리стал 마라워 워터 아이즈 - 페이스 마스카라** 기특한 포플라가 자극 없이 피부 불순물을 씻어내고, 리프소스 병행수와 하향부산물, 판테놀로이 수분을 공급해 금세 메이크업 잔여물을 닦아준다. 150ml 17만5천원. 문의 02-511-6626 포토그래퍼 김시윤 에디터 이주이

비누의 세계

달콤한 향기로 표현하는 깨끗함. (왼쪽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티르 도카멘트 from 네타포르테 라프 컷 비누** **아름다운 엑스클루시브** 미들 이스트 지역 현지 장인들이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전통에 따라 수작업으로 만든 비누. 120g 2만엔대. 문의 00798-4434-1351 **프리오르-브 내베리 시뮬 퍼퐁 에 포르트 시뮬** 그리스 향료의 상징인 약의 눈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자중해의 신성한 기원과 향을 담아 고급스러운 도자기 질감과 함께 출시한다. 150g 525천원. 문의 080-363-5454 **샤넬 수블리미지 리치 클렌징 폼** 부드러운 향긋한 기쁨이 피부에 남아 있는 피자와 메이크업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단순 클렌징에 사용해도 건조하지 않다. 115g 11만1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블리 1803 시뮬 수레방아 피부 밸런스**를 유지해 은은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게 한다. 저자극 중성 비누로 아이들이 함께 사용해도 좋다. 150g 428천원. 문의 1544-5114 포토그래퍼 최민정 에디터 정미윤



송아지 가죽으로 완성한 견고한 외관에 부드러운 양가죽 인장을 덧댄 미니 올림피아백. 19x11cm, 1백92만원
바버리.

인테리어로 재빨리 손가죽 브레이슬릿 23만원
올림피아백.

스타일링 포인트가면 미팅 **어벤트.**

44mm 가죽 케이스 1백14만원, 스우퍼트 카프 스킨 상급 투어 스트랩 47만9천원 **에르메스.**

심세한 우븐 디테일이 특징인 카프 리더 벨트 1백2만원 **볼 포드.**

캐시미어 니트 1백97만원 **브루넬로 쿠치넬리.**

개성을 살려야 무가늬 면으로 제작한 스카프 역시 울과 실크를 혼용한 것만으로도 **제이 바틀.**

스타일링 포인트 유망점 어스톤에 이색적 **에디터 아우미.**

for him Selection

경쾌한 봄의 시작을 알리는 파스텔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메탈 선글라스 45만4천원 **포라다 by 루스타카.**

FF 모터볼을 전면에 장식한 플립 커버 아이폰 케이스 1백만원대 **렌다.**

신축한 레몬 컬러가 금장의 기운을 전하는 드라이버 슈즈 80만원대 **살비토레 페라기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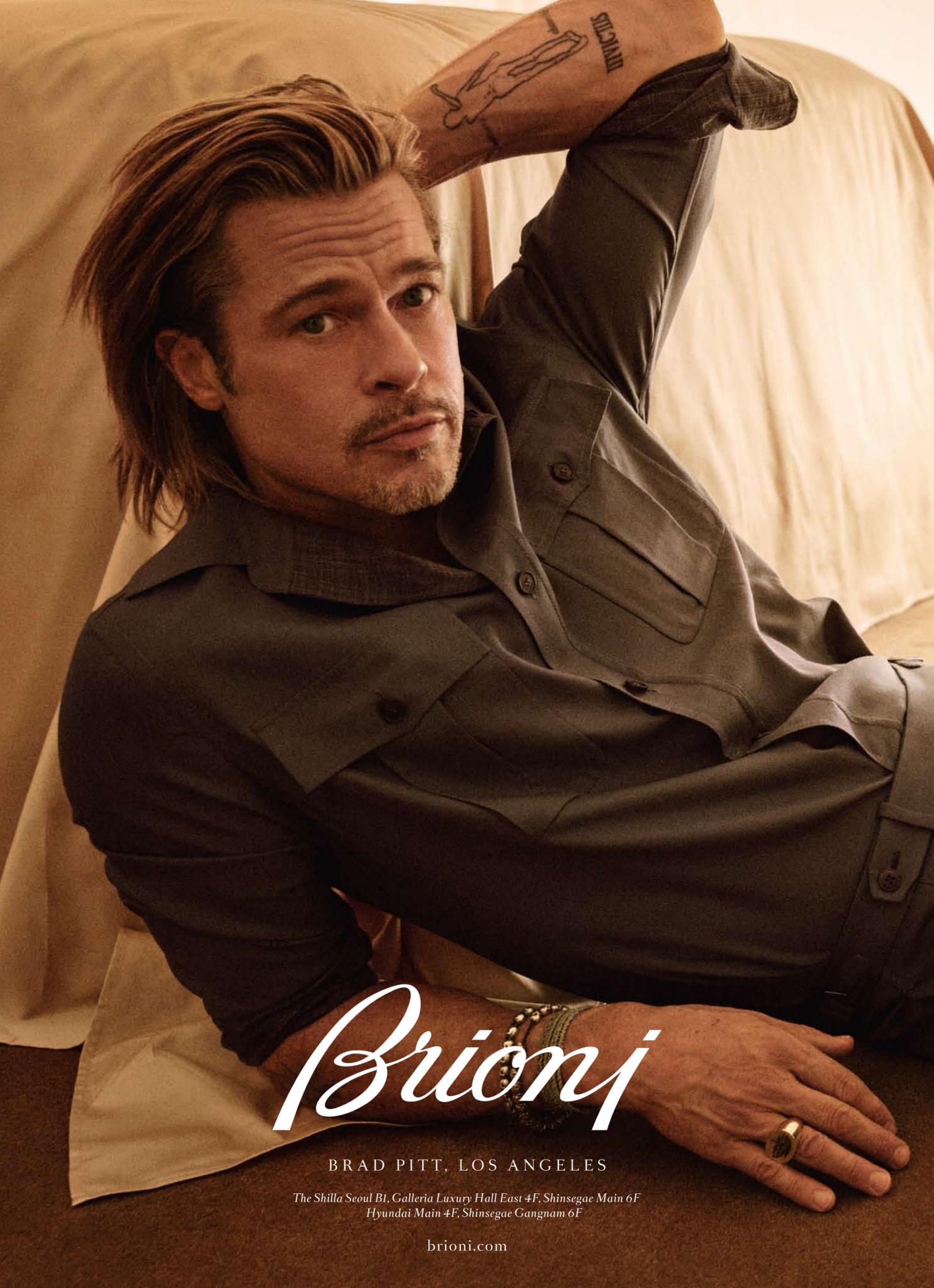
부츠 지만트 벨트 가면 미팅 **구찌.**

베이블리 패턴이 돋보이는 실크 타이 39만원 **브리오니.**

카무플라주 패턴을 적용한 소가죽 클라치. 32x23.5cm, 46만원 **보스 맨.**

바버리 080-700-8800 **올림피아백**이나 02-3442-6888
에르메스 02-542-6622 **볼 포드** 02-6905-3534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루이 비통 02-3432-1854 **렌다** 02-514-0652 **루스타카** 02-501-4436 **브리오니** 02-516-9686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살비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보스 맨** 02-515-4088 **구찌** 1577-1921

가볍고 실용적인 러버 샌들 가면 미팅 **보테가 베네타.**



Brioni

BRAD PITT, LOS ANGELES

The Shilla Seoul B1, Galleria Luxury Hall East 4F, Shinsegae Main 6F
Hyundai Main 4F, Shinsegae Gangnam 6F

brioni.com



Jumper
1 2 3 4

그린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핑크빛 캐시미어 카디건 35만8천원 정퍼 1234 by 폴스튜디오.

스틸링 살바와 에펠 조합으로 선보이는 하트 이어링 가격 미정 구매.

인타룩 저지 니트 소재로 제작한 마스크 13만원 톨포드.

스틸링 살바와 에펠 조합으로 선보이는 하트 이어링 가격 미정 구매.

데를 간지니 벨트 50만원에 샬비토레 페라모.

코튼 소재의 가볍고 실용적인 D-스트라이프 워킹 신발 스니커즈 1백50만원에 톨포드.

부드러운 송이저 가죽과 대조되는 투명한 레진 힐을 적용한 라벤더 샌들 70만원에 톨포드.

상큼한 레몬 갈라가 물보이는 헤어 클립 50만원 미우미우.

간편 송이저 가죽 소재 아이폰 커버 20만원 톨포드.

for her Selection

사랑스러운 캔디 컬러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이탈리아엔브 소재로 제작한 마크로스 20x16cm, 35만8천원 조이그라이스.



팔각형 18K 베이지 골드 베젤을 따라 6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보아프랜드 워치 가격 미정 샬비토레 페라모.



핑크 골드에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로도크로사이트, 핑크 쿼츠를 장식한 벨리브 이어링 2천47만원 프라다.

- 폴스튜디오 02-3449-5359
-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 톨포드 02-6905-3640
- 구찌 1577-1921
- 샤넬 080-200-2700
- 토폴 02-3438-6008
- 디올 02-3480-0104
- 미우미우 02-3218-5331
- 프라다 02-3218-5331
- 조이그라이스 080-202-2002
- 리모와 02-546-3920
- 샤넬 워치 080-200-2700, chanel.com
- 프라데 02-514-3721
- 샬비토레 페라모 02-3430-7854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캐리어. 80x37cm, 1백38만원 리모와.



LANCÔME PARIS



피부 속 깊은 변화의 시작, 압솔뤼

ABSOLUE - THE CREAM

탄탄해진 피부. 새롭게 피어나는 피부 광채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

보랏빛 노을(紫霞) 품은 동네의 남다른 행보

요즘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는 '동네 아티스트(?)'들을 그려모아 소개하는 의미심장한 현대미술 전시가 열리고 있다. 여기서 '동네'라 함은 '자문밖' 일대를 말한다. 종로구에 속한 부암동·신영동·구기동·평창동·홍지동을 한데 묶어 부르는 명칭이다. 원래는 한양도성의 북소문인 창의문의 별칭이 지하문(紫霞門)이어서 '자문밖'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사람들이 이 일대를 점차 '자문밖'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자문밖 동네와의 인연을 공동 분모로 하는 가나아트센터 전시 작가 명단을 훑어보노라면 눈썹을 절로 치켜올리게 된다. 박서보, 김창열, 유영국, 김구림 등 거장들을 위시해 미술계에서 이름깨나 날리는 작가들이 포진되어 있어서다. 이 일대에 문화·예술 자산이 풍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동네의 위용이 새삼 달리 느껴진다. 자문밖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산을 바탕으로 진정한 '아트 벨리'를 조성하고자 나선 당찬 행보에도 눈길이 간다. 이름하여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 전시명이기도 한 이 프로젝트는 자문밖 사람들과 비영리재단, 그리고 종로구청이 함께하는 민관(民官) 협업형이라 더욱 흥미롭다.

“도시는 모든 이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는 도시가 모든 이의 참여로 창조되었을 때만 발견된다.”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

천 만 가까운 인구를 거느린 서울 같은 '메가 시티'는 늘 난제가 들끓는 애증의 대상이다. 아마도 그 주된 이유는 대다수가 도시를 열망하기 때문일 터. 갖은 푸념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꿈을 위해, 필요에 의해 꾸역꾸역 도시로 모여든다. 20세기 초에는 세계 인구의 10분의 1가량이 도시에서 살던 데에 비해 오늘날엔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정도의 고밀도화가 전개되는 상황인데, 이 같은 '도시화' 현상은 갈수록 심해져 갈 전망이다. 도시경제학 권위자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가 집필한 스테디셀러의 제목처럼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라 일컬어지는 '도시의 승리'는 불가피한 셈이다. 그런데 도시는 승리할지 모르지만, 도시민들은 거센 도시화, 산업화, 기능화의 물결에 휩쓸려 지나칠 정도로 자주 실패를 맛본다는 그의 부연 설명이랄까 염연한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개발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를 삼키며 씩씩히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너도 나도 도시를 훌쩍 떠나버릴 수도 없다. 그래서 문화, 예술, 창의적인 기술에 투자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울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창조 도시론이 부단히 거론되고, '소프트 시티' 같은 다분히 인간 친화적 도시 재생이 키워드로

부각되는 것일 테고 말이다. 더구나 온 지구에 피멍이 들 정도로 강타를 날린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대다수가 주거지와 가까운 동선에서 일상을 보내면서 '우리 동네, 나의 집은 한층 소중하고 애뜻한 삶의 터전으로 여겨지게 되지 않았는가.

‘도시의 승리가 드리운 그림자를 극복한다
이제 문화·예술을 매개체로 도시 재생을 꾀하는 시도는 직접적 느껴질 정도로 흔하다. 그런데 사실 여러모로 박자가 골고루 맞춰진, '지속 가능한' 전범이 될 만한 사례가 많지는 않다. 수요층이 얇은 데도 그저 낙후된 곳에 자본을 밀어 넣어 억지로 끌어 올리려다 활력 없는 인프라인 남기고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개발'이란 명목으로 지역이나 동네를 지나치게 '소비'함으로써 정작 거주민들에게 피로감과 짜증을 안겨준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기획은 했지만 뭔가 급조되고 획일화된 모습이라 별 재미는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변화인지 모를 회의감을 빚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론 도시는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유기체 같은 존재이긴 하다. 그러나 다각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출간된 지 무려 반 세기가 지났지만 도시계획·재개발 분야에서 여전히 뜨거운 고전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1961)을 남긴 제인 제이콥스가 강조했던) 자생적인 발전 가능성이 무시된 계획은 반도시적이



자료 제공: 가나아트센터, 자문밖문화재단, 종로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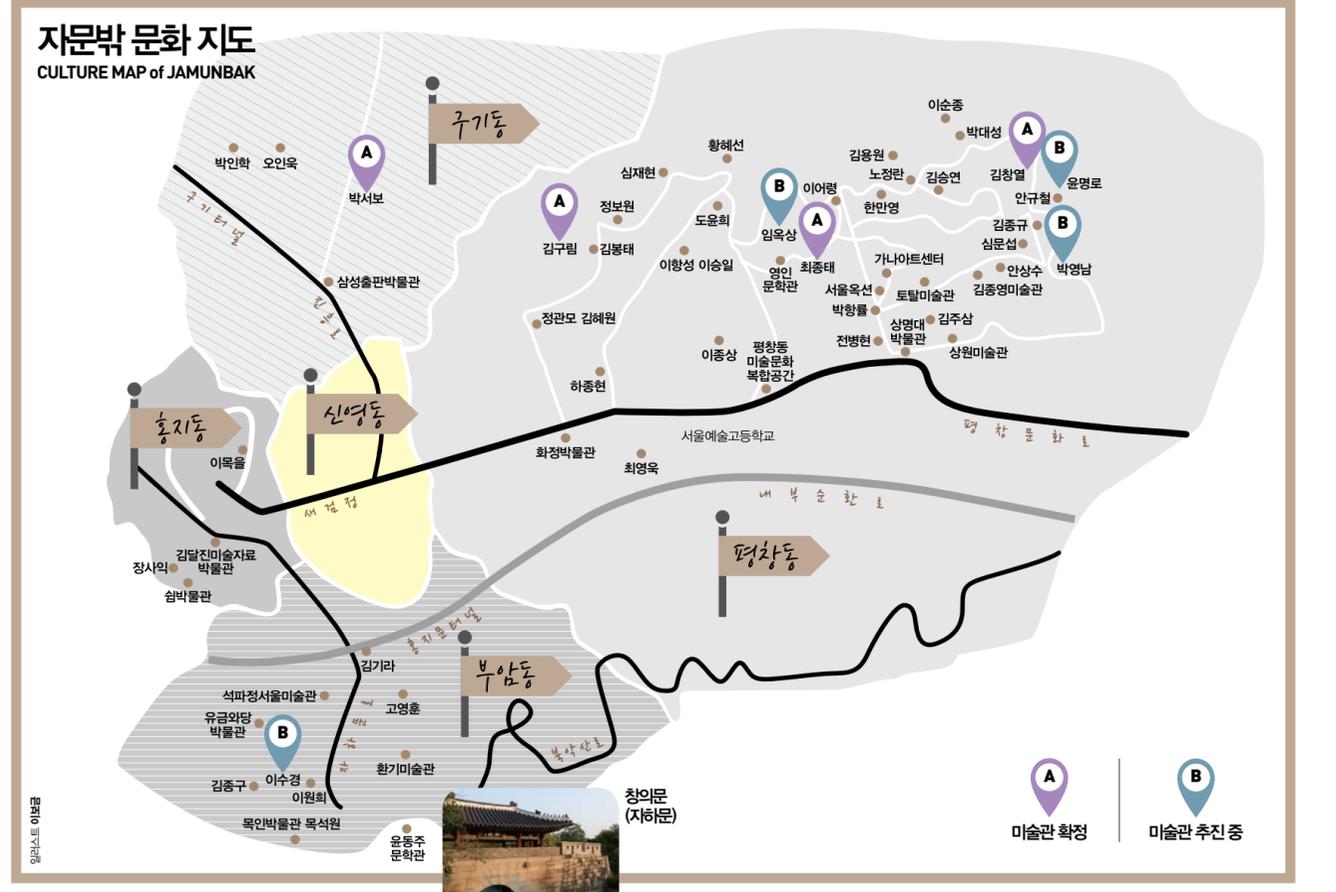
고, 반인간적인 헛수고이자 낭비로 끝날 수 있다.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나 자문밖 문화축제 등을 중심으로 한 '아트 벨리' 만들기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자못 기대감이 드는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자문밖 일대는 이미 자생적으로 빚어진 풍요로운 예술 자원을 품고 있다. 이 동네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미술인, 문학인, 음악인, 출판인 등 문화·예술계 인사가 200명을 훌쩍 넘는다 하니 가히 '예술인 마을'이라 할 만하다. 또 크고 작은 미술관이나 문화관, 갤러리, 공방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시설도 100여 개나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자면 가나아트센터, 김종영미술관, 서울미술관, 삼성출판박물관, 영인문화관, 토탈미술관, 환기미술관 등이 터를 잡고 있고 서울에 고, 국민대, 상명대 등의 교육기관도 함께 자리한다. '신선'이 사는 곳에 서리는 보랏빛 노을을 뜻하는 '자하(紫霞)라는 아름다운 이름에 잘 어울리듯, 이 동네는 도심에서 15분 정도 거리가 있지만 북한산, 북악산, 인왕산 등 명산과 유적으로 점철된 빼어난 환경 덕분에 한적한 전원 마을의 분위기를 풍기기도 한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울편 2를 보면 저자 유희중 교수가 자신을 서울 청운초등학교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회상하는 대목이 있다. "해마다 자문밖으로 소풍 갔지만 내 기억에 남은 것은 우리가 뛰놀던 계곡과 바위, 그리고 멀리서 바라본 능금발뿐이다." 세월이 흐르면 서 '천연'의 느낌은 덜해지고 점차 평창동과 구기동의 신비함이 고급 택지로 개발되면서 모양새가 달라졌다. 심지어 일부는 다소 번잡스러워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외의 근사한 시골 마을이 연상되는 구석이 많은 곳이다.



다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업형 행보
어쨌거나 이처럼 질적, 양적으로 풍부한 콘텐츠와 인프라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자문밖 일대는 서울에서 예술과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보기 드문 자산을 보유한 동네가 됐다. 2013년부터는 매년 가을,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자문밖 문화축제와 포럼도 진행되고 있다. 그토록 가치 있는 동네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문화·예술을 매개로 의미 있는 소통과 느슨한 연대를 꾀하자는 차원에서다. 또 작년부터는 신진 작가나 성장기의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 플랫폼 '자문밖 아트 레지던시'도 발족했다. 그리고 올봄 가나아트센터의 전시를 앞세워 본격 시동을 걸게 된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는 이 일대를 더 썩어내 있고 생기가 있는 '아트 벨리'나 '아트 터운'으로 만드는 증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특기할 만한 점은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가 양질의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층 더 차별화된 미술관과 행사, 프로그램 등 '소프트+하드웨어'를 다채롭게 쌓아 올리는 '상향식(bottom-up)'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술관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논의되



1. 서울 종로구에 속한 부암동·신영동·구기동·평창동·홍지동을 한데 묶어 부르는 '자문밖' 일대의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 일러스트 제공: 자문밖문화포럼. 2. 자문밖 소재의 작가들을 기거하거나 만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미술관을 만드는 민관 협업 문화 사업의 본격 시동을 알리는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 전시 포스터. 가나문화재단과 자문밖문화포럼이 주관해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 전시는 지난 1월 22일~2월 28일에 진행된 1부(Part 0)에 이어 3월 5일부터 28일까지 2부(Part 1)가 펼쳐진다. 1부 전시 작가는 김구림, 김창기, 김봉태, 김창열, 박서보, 심문섭, 유영국, 윤영로, 이종성, 이항성, 최중현 등 12인. 3 단계로 세계적 현대미술가 반열에 오른 박서보 작가(2019년 사진). © the artist. 4. 해르먼 네르케 구기동에 들어선 박서보 단색화 미술관의 렌더링 이미지. 5. 지난 1월 5일 92세의 나이로 숙환으로 별세한 김창열 화백의 모습. '행방을 회가로 세계적 인지도를 얻은 작가'. 사진 제공: 갤러리현대. 6. 평창동에 있는 김창열 화백의 자택은 개조 작업을 거쳐 7월 미술관에 운영될 예정이다. 김 화백은 소장 작품 1만300여 점을 기증하기도 했는데, 이 중에는 1000호가 넘는 미공개 대작 '행방을 회화'도 포함되어 있다고. 7.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 <자문밖 미술관 프로젝트> 전시 1부에 선보였던 고영준 화백(90세)의 작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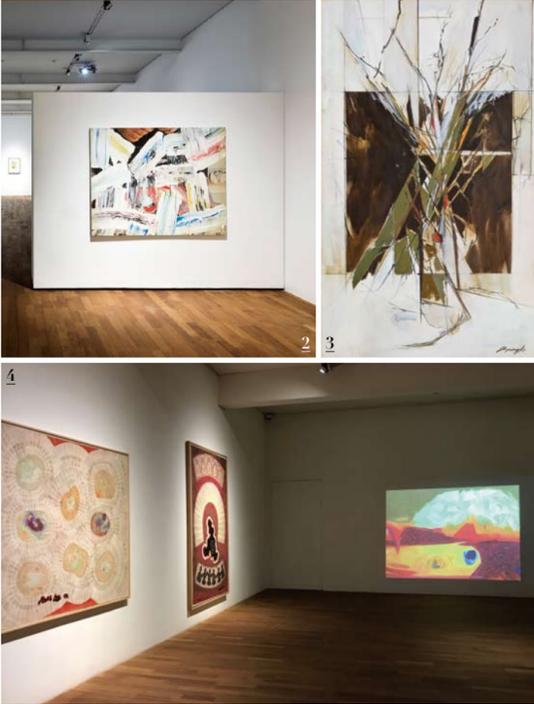


고 있다. 종로구 구유지에 한국 근현대 화단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미술관을 신축하거나, 자문박 소재 작가의 자택과 작업실을 개조하는 아카이브형 기념 미술관을 만들거나, 현재 활동 중인 작가들의 작업실을 활용하는 아틀리에 미술관을 꾸미는 것이 그것이다. 행정기관인 종로구청(김영중 구청장), 이호재 가나아트 회장이 출품시킨 비영리재단인 가나문화재단, 사단법인 자문박문화포럼이 총대를 메고 든듯한 지원군으로 나서고 있다. 이 동네와 연이 있는 미술가들이 재능이든 자산이든 프로젝트를 위해 선사하는 기부 대열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무대에서 '브랜드'로 발돋움하며 '미술 한류'를 이끌고 있는 박서보를 비롯해 지난 1월 타계한 김창열 그리고 김구림, 최중태 같은 거목들이 작품이나 공간 등을 기꺼이 내어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다른 원로 또는 후배 작가들까지 합류하고 있는 추세다.

자문박 '아트 밸리'와 미술관 프로젝트의 의미
 "미술관이 이미 많은데, 굳이 또?" 어쩌면 이 점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었다. 초기에 투입되는 자본도 그렇지만 추후에도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한 성격의 프로젝트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고즈넉한 동네에 휘황찬란한 랜드마크를 박아놓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작가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간이 다채롭게 펼쳐진다면 환경엔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촘촘히 들어선 아트 공간들을 잇는 거리와 골목에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어느새 노령화 되어버린 이 일대에 생동감이 깃들 것이다. 그리고 삼청동, 서소문 일대에 자리 잡은 국공립 미술관들과 갤러리들을 거쳐 자문박 거점으로 이동하는 미술 산책 루트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을 더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 당장은 스타 작가들에게 눈길이 쏠린다 해도 마땅히 재조명받아야 할 자문박 일대의 원로 작가나 소외되기 십상인 젊은 작가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을 테고 말이다(1백50명이 넘는 자문박 작가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105세까지 아우른다). 아직 초기 여정이지만 나름 성과도 있다. 구기동에

지어질 예정인 박서보 단색화 미술관은 빠르면 내년께 선보일 수도 있다(작가가 1백 점 이상의 작품을 기증할 예정이다). 각각 1백50점, 1백 점 이상의 소장품을 기부할 예정인 김구림과 최중태 작가를 기리는 미술관도 건립이 정해졌다. 김창열기념 미술관은 고인의 평창동 자택을 기반으로 하기에 이르면 올 하반기에 문을 열 가능성도 있는데, 작가 소장품 1백80여 점을 기부하기로 했고, 귀한 사로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현재 논의 중인 추상화가 윤희로, 한국 관화의 선구자 이항성 등 이 지역의 다른 원로 작가들을 둘러싼 움직임도 활발해질 듯하다. 가나아트센터의 3월 전시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 2부(Part II)에 참가한 안규철 작가는 "마침 아카이브와 연구에 초점을 맞춘 서울 시립미술관(SeMA)의 분관도 평창동에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가들이 평소에 쓰던 작업실이 미술관으로 보존될 수 있다면 예술가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기동에 머물다가 평창동으로 2015년에 이주해 자문박 문화축제 때 오픈 스튜디오 등에 동참해온 그는 설치, 영상, 퍼포먼스처럼 기록으로만 남곤 하는 현대미술의 경우에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건 동시대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아틀리에 미술관이다. 아직 100% 확정은 아니지만 이수경, 박영남, 임옥상 등의 작가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작품도 전시되지만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그들과 함께 작업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아마 2층이 될 텐데) 한 층은 제 작업실로 쓰는 구도를 그려보고 있어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미술, 심리상담 등에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미술은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봐요." 2005년부터 부암동에서 거주해온 이수경 작가의 설명이다. 언젠가부터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왔다는 이 작가는 "정말 좋은 프로젝트인데, 스스로는 진지하게 임하는 큰 숙제처럼 여긴다"면서도 설렘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의 바람대로 부디 이 프로젝트가 그들의 일상 풍경만이 아니라 다른 동네나 지역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미치는 사례로 꽃피우기를 기대해본다. 글 **고성연**



1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 전시 1부에 선보인 조각가 최중태(89세)의 추상화 가운뎃(85세)의 작품들. 2 한국 전위예술의 확을 그린 김구림(85세) 작가의 작품이 보인다. 김구림과 최중태는 미술관 건립이 정해졌다. 윤희로 작가도 자택을 개조한 미술관 설립을 논의 중이다. 3 105세 한정 작가 김경기의 일초도(1983). Oil on canvas, 151x91cm. 4 한국 관화의 선구자 이항성(1919~1997)과 추상미술의 거장 윤희로(1916~2002)의 전시 모습. 5 2021년 3월 5일부터 28일까지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 전시 2부 포스터. 참여작가는 고영훈, 박대성, 박영남, 박원철, 안규철, 이혜, 이유경, 이원희, 임옥상, 찬병현, 최영준, 한민영 등 12인. 2부에는 자문박에 지원한 자신의 작업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이항성에 미술관 대상 작품이 포함되었다. 6 대표작 번역된 도자기 시리즈 등으로 국내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수경 작가는 아틀리에 뒀는 창의적 놀이와 공동 작업,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아틀리에 미술관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 Yeesoonyung Photo by 양인원 7 안규철, 그들이 떠난 곳에서 바다(2012), Acrylic on canvas, 38x27, 3x19cm) 캔버스 2개, 자취를 알 수 없는 5·18 실종자 애가를 담은 2012년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당시 2백 개의 캔버스를 사내 곳곳에 바라놓고 둘러달라는 스톤 광고를 냈는데 스톤 대머섯 장만 돌아와 '원본'은 없었다. 안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재작업했다. Courtesy of the Artist 8 역시 이항성에 미술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박영남 작가 작업 중인 모습. Courtesy of the Artist

the very best

클래식한 디자인과 하이 컴플리케이션의 조화.
 성공적인 한 해를 완성해줄 퍼펙트컬 캘린더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향연의 최후의 순간을 함께하기 좋은
 품격과 고급스러움까지 750m 10만엔대
Big H. Mumm. 문의 02-3488-5700

(왼쪽 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블링방 빌라데 6 데이즈 퍼페추얼 캘린더** 리치 문메이스, 스몰 세컨즈, 8일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셀프와인딩 칼리버 5939A로 구동한다. 그레고리안 달력상에서 매달 달리지는 마하판 날짜, 그리고 4년 주기로 변경되는 2월의 길이를 2100년까지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메카니즘을 자랑한다. 케이스 지름은 42mm로, 후면에는 블링방 특허 기술인 언더 라그 코퍼터를 장착해 날짜와 문메이스 인디케이터를 조절할 수 있다. 6천3백만원대. 문의 02-3213-2261 **에거 르클로트르 마스터 울트라 씰 퍼페추얼** 퍼페추얼 문메이스와 문메이스 인디케이터가 균형을 이루는 우아한 에그셀 배지 질리 다이얼이 돋보인다. 메종이 지난 울트라 씰 기술력을 대변하는 모델로 두께 9.2mm에 불과한 얇은 핑크 골드 케이스 안에 모든 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칼리버 868/1을 탑재했다. 2100년까지 추가 세팅이 불필요하며, 매달 날짜를 자동으로 계산해 윤년마다 2일 29일을 표기한다. 케이스 지름은 39mm, 옐리케이터 레더 스트랩과 함께 제공한다. 4천3백90만원. 문의 02-6905-3998 **소피트 LUC 루나 원** 샌데이 브라운 처리된 큼직한 로마숫자 인덱스를 대안 슬러 다이얼, 유려한 곡선을 그리는 입체적인 화이트 골드 케이스가 조화를 이룬 모델. COSC로부터 인증받은 크로노미터와 재빠른 실을 2인원 기계식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96.13-L을 탑재해 1백22년 동안 단 하루의 오차가 발생할 만큼 고도로 정밀한 문메이스를 자랑한다. 케이스 지름 43mm,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한다. 9천3백74만원. 문의 02-6905-3390 **비세몬 콘스탄틴 페트리오니 퍼페추얼 캘린더 울트라 씰** 별도의 이음새 없이 하나의 조각처럼 매끈한 바스킨 형태 케이스와 불룩한 돌출 다이얼, 빈주 형태로 양각 처리한 마틴 트랙 등 시계의 모든 부분이 원형 실루엣을 이루는 기품 있는 외관이 돋보인다. 지름 41mm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 두께 4.05mm에 불과한 자동 기계식 칼리버 11200P를 탑재. 윤년 주기에 따른 달력의 불규칙성을 완벽하게 계산해 알려준다. 모든 컴플리케이션은 2100년 3월 1일까지 오차 없이 작동한다. 1억7백만원대. 문의 02-3446-0088 **IWC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 42** 지름 42mm의 스틸 케이스와 실버 도금 다이얼, 골드 도금 핸즈와 인덱스, 실크나사의 블랙 옐리케이터 레더 스트랩이 어우러진 클래식한 무드의 퍼페추얼 캘린더 워치. 3·6·9시 방향에 위치한 3개의 서브다이얼은 각각 날짜·월·요일을 표시하며, 달의 주기와 윤년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문메이스 디스플레이까지 갖췄다. 모든 컴플리케이션은 싱글 크라운으로 간편하게 조정 가능하다. 효율성을 높인 헬라톤 와인딩 시스템을 갖춘 인하우스 칼리버 82650으로 구동하며 약 8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2천8백40만원. 문의 02-3440-5876 **에디터 아메비**



7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 전시 1부에 선보인 조각가 최중태(89세)의 추상화 가운뎃(85세)의 작품들. 8 한국 전위예술의 확을 그린 김구림(85세) 작가의 작품이 보인다. 김구림과 최중태는 미술관 건립이 정해졌다. 윤희로 작가도 자택을 개조한 미술관 설립을 논의 중이다. 9 105세 한정 작가 김경기의 일초도(1983). Oil on canvas, 151x91cm. 10 한국 관화의 선구자 이항성(1919~1997)과 추상미술의 거장 윤희로(1916~2002)의 전시 모습. 11 2021년 3월 5일부터 28일까지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자문박 미술관 프로젝트 전시 2부 포스터. 참여작가는 고영훈, 박대성, 박영남, 박원철, 안규철, 이혜, 이유경, 이원희, 임옥상, 찬병현, 최영준, 한민영 등 12인. 12 2부에는 자문박에 지원한 자신의 작업실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이항성에 미술관 대상 작품이 포함되었다. 13 대표작 번역된 도자기 시리즈 등으로 국내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수경 작가는 아틀리에 뒀는 창의적 놀이와 공동 작업,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함께할 수 있는 아틀리에 미술관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 Yeesoonyung Photo by 양인원

originality in Korean Art

박래현, 김환기, 김창열, 유영국, 이우환.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거장 5인의 작품 세계를 아우르는 전시가 펼쳐진다. TV CHOSUN 개국 10주년을 맞이해 아트조선과 공동 기획한 특별 기념전 <한국 현대미술 거장展: 더 오리지널>. 오는 3월 9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저마다의 사유와 스타일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한국 현대미술에 의미 있는 획을 그은 5인의 작품을 100점 가까이 선보인다. 회화뿐만 아니라 박래현의 판화, 김환기의 드로잉 등 다양한 미디어의 작품과 미공개작도 포함되어 있다. 전시 주인공 5인의 면면을 미리 살펴본다.

모험기적 기질로 동양화의 현대화 이끈 박래현

지난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국립현대미술관(MMCA) 덕수궁관에서 열린 회고전을 통해 극찬을 받으며 재조명된 박래현(1920~1976). 올해에도 MMCA 청주관에서 회고전이 이어지고 있는 박래현은 청각장애를 지닌 유명 화가 남편(윤보 김기창)을 뒷바라지하고 네 아이를 키우면서도 틈날 때마다 붓을 들던, 그야말로 슈퍼 우먼이었다. 한국적인 동시에 현대적인 회화를 모색하며 동양화의 재료와 기법을 뛰어넘어 세계 화단과 교감할 수 있는 추상화, 판화, 테피스트리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구축한 그의 자취는 한국 미술사에서 선구적인 행보라 할 만하다. 그러나 가부장적 분위기가 만연한 시대를 살던 터라 그녀의 이름에는 늘 '청각장애 천재 화가 김기창의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김기창은 평소 지식들에게 "네 엄마는 더 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했다고도 전해진다. 특히 57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며(1976) 독자적으로 조명될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박래현은 '동양화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는 데 거침이 없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추상에 돌입했을 때도 단순히 쓰지 않던 재료를 활용하는 정도에 그치

지 않고, 동양화의 정체성에 기반한 주제 의식을 견지한 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했다. 이처럼 서양화와 구별되는 동양화만의 특질을 살리고 당시 세계 화단에서 유행하던 추상화를 동양화로 해석해낸 작가의 노력은 21세기의 감성으로 봐도 세련된 느낌의 작품으로 그 결실을 남겼다. 이를테면 변집, 드리핑, 두드림, 갈필 등 역동적 방식의 작업을 통해 한지에 그린 것임에도 유화의 마티에르가 주는 그것에 비견하는 감성을 빚어낸다.

김환기 점화의 근원은 그리움...

작가 커리어의 절정기를 하나만 특정하기 힘들 만큼 김환기(1913~1974)의 예술혼은 매 시기 '정수'를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뉴욕 시기는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점화가 발아'하고 완성된 때다. 파란색을 즐겨 사용하며 이른바 '환기 블루'가 탄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1963년 제7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명예상을 수상한 뒤 미국 추상 미술 경향에 심취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그는 도미를 감행한다. 이후 국내 화단에는 통소식이 없던 그가 1970년 한 국미술대상에 점화를 들고 나와 극적으로 바뀐 화풍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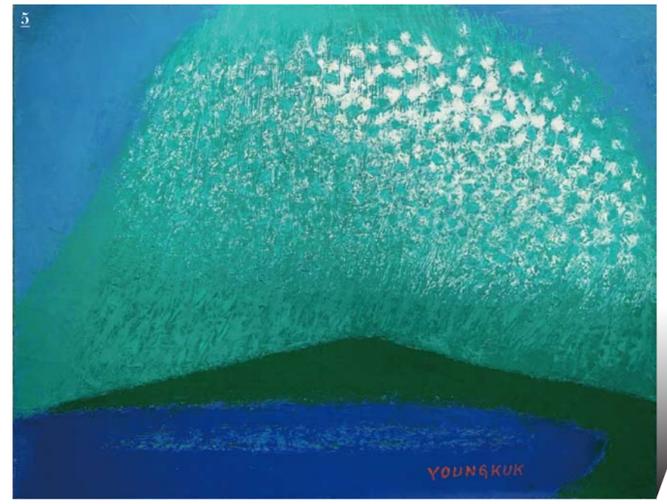


이미지 제공: 아트조선

보이며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전의 도드라지는 마티에르와 구상(具象)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점과 선, 면으로만 이뤄진 추상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수상작이 바로 '16-IV-70 #166'(1970). 절친하던 시인 김광섭의 시구에서 따온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진 작품이다. 뉴욕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편지를 교환하던 중에 1970년 김광섭이 죽었다는 오보를 접하고 충격을 받아 이 그림을 그렸다. 전면에 동양화의 그것처럼 번지는 효과가 이



1 TV CHOSUN 개국 10주년 특별 기념전 <한국 현대미술 거장展: 더 오리지널> 포스터.
2 이우환, 'From line-80046'(1980), 캔버스에 유채, 115 X 90cm.
3 박래현, '작품 6'(1968), 종이 매체, 150 X 135.5cm.
4 김환기, '4-XI-69 #132'(1969), 캔버스에 유채, 76.5 X 61cm.
5 유영국, '무제'(1979), 캔버스에 유채, 53 X 40.9cm.
6 김창열, '물방울 No. 30'(1977), 마티에르 유채, 100.3 X 100.3cm.



용한 점들로 가득 찬 서정적인 추상화로, 김환기의 점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점화는 참으로 아름답지만 정작 이를 그린 김환기는 외롭고 서글웠다. 그의 번뇌는 그림만큼이나 많이 남긴 글에서 자주 발견된다. "일을 하며 음악을 들으며 혼자서 간혹 우는 때가 있다. 음악, 문학, 무용, 연극 모두 사람을 울리는데 미술은 그렇지 않다. 울리는 미술은 못할 것인가." 점화의 근원은 결국 그리움이었다. 고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를 절실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한 점 한 점 점화를 완성해갔던 것이다. 애초에 심상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일까. 오늘날 우리는 그의 그림 앞에서 쉬어갈 땀 수 없다. '울리는 미술'을 그는 결국 해냈다.

김창열의 '물방울'은 물방울이 아니다

지난 1월 5일, 김창열(1929~2021) 화백의 부음이 들려왔다. 반백 년 가까운 시간 투명하고 맑은 물방울을 빚어온 그가 타계했다는 소식이 국내의 미술계는 숙연해졌다. 물방울은 물의 수많은 형태 중에서도 입김만으로도 사라져버릴 듯 가장 연약하다. 그러나 김창열의 화면에서는 보석처럼 찬란히 반짝이며 영롱한 빛깔을 보여줌과 동시에 보는 이의 눈과 마음에 충만함과 그득함을 선사한다. 그래서 그의 '물방울'은 그냥 물방울이 아니다. 작가는 물을 단순 묘사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빛에 반응하고 투과하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물의 특성을 빌려, 예술가로서 자신을 투영하고자 했다. 전쟁을 겪은 김창열에게 물방울이란 그로 인한 상실감과 상흔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물방울로 용해하고 무(無)로 돌려보내고자 한다. 불안도 공포도 허(虛)로 전복해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창열은 프랑스 신문 <르 휘가로(Le Figaro)> 위에 물방울을 그려 넣은 작품 '휘가로지'(1975)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화

면 안에 문자를 끌어들었다. 그에게 문자는 물방울만큼이나 중요한 화두였다. 신문을 옮겨 쓰거나 글자를 해체해 그려 넣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천자문이 고정적으로 등장한다. 조부로부터 배운 천자문과 유년 시절 기억을 떠올리며 문명의 근본과 세상의 이치가 담긴 천자문을 깨치던 배움의 원점으로 돌아가 정신적으로 수행하고자 한 작가적 의지가 읽힌다. 물방울과 문자와의 접점이 일견 성글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작가가 애초에 물방울도 조형미가 아닌 상징적 의미를 차용하고자 했듯이, 이보다 더 직접적인 문자 쓰기로 소재가 확대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자연의 정수, 곧 유영국의 정수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점, 선, 면, 색과 같은 기본 조형 요소로 형상화해 표현한 추상화가 유영국(1916~2002). 자연을 사랑하고 흠모했던 작가는 적색, 황색, 녹색, 청색 등 강렬하고 원색적인 색채로 그 정수(精髓)를 담아냈다. 경북 울진에서 타고 자란 유영국은 자근거리로 바닷가를 두고 서 허리가 말다 하고 배를 타고 나갔다. 해변에서 또는 배 위에서 바라보는 일출과 일몰 풍경은 작가에게 큰 영감이 됐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서는 빨강, 노랑 등 따뜻한 색조가 강렬한 색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모두 자연에서 따온 색채다. 작가의 장남인 유진 유영국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은 "아버지는 산천을 구경하길 좋아했다. 호남으로 여행을 다니고 배를 즐겨 탔다"고 설명했다. 유영국은 산은 삼각형으로, 빛은 원으로 그렸는데, 이는 엄정하게 증명된 기하학적 질서를 강조하는 절제된 추상 요소로 읽힌다. 작품 속의 산은 단순한 풍경 재현이 아니라 순수 조형 요소를 빌려 구축한 역구적인 궁정적인 비전을 상징하기도 한다. 구성적인 도형 속에서 자연의 원형을 발견하고 그 본질을 찾고자 했던 것이

다. 유진 이사장은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어린 내가 뭐하느냐고 물으면 '그림 공부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면서, '예술까지는 계속 공부해야 한다며 그림 앞에선 늘 진지하고 계획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회상했다.

점(點)에서 발아한 이우환의 우주

물감을 흠뻑 적신 붓을 캔버스 위에 척 올리고 그 붓을 천천히 아래로 끌어내린다. 필선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소멸되듯 서서히 자취를 감추며 잔잔히 일렁이는 수면처럼 고요한 파동을 선사한다. 그러곤 다시 붓에 물감을 묻혀 또 다른 필선으로 이 행위를 거듭한다. 이우환(1936~)의 'From Line(선으로부터)'에는 캔버스 바탕에 파란색 선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내려 그어간 흔적이 담겨 있다. 선의 굵기와 형태는 거의 동일하며 선들의 간격도 일정한 것이 조형적 특징이다. 간단명료하며 단조로운 구성이지만 그 이면에는 담백하고도 무한한 철학적 성찰이 내재돼 있다. 회고무례한 선들은 오히려 이우환이 의도한 본질적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하는데, 이 선들은 기와 생명력의 기원이자 출발점이다. 이들을 재차 그어가면서 작가는 무위 자연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듯하다. 'From Point(점으로부터)'에서 파생된 'From Line'은 이우환의 대표작으로, 제목이 말해주듯 기본 조형 언어인 점과 선에서 시작됐다. 어릴 적 우연히 들은 "우주 만물은 점에서 시작해 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에서 기인한 그의 예술 세계는 오늘날 '국내 생존 작가 중 가장 비싼 작가'란 수식어로 입증된다. 지난해 한국 미술품 경매 낙찰 총액 1위로, 그 금액이 무려 1백50억원에 이르게도 했다. 이번 전시에는 경매시장에서 인기 있는 1980년대 작 '선으로부터'를 비롯해 'East Winds(동풍)' 등이 출품된다. 문의 02-724-7832 글 유다람(아트조선 기자) 에디터 고성연

(위부터) 비제몬 콘스탄틴 워치 로망티크 폴 파베 워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3백75개의 총 3.5캐럿 다이아몬드를 장식했다. 우아하고 화려한 다이얼과 배젤, 크라운과 버클이 조화를 이룬다. 한정하는 블랙 사틴 스트랩 또한 화이트 골드와 정제된 핑크 버클로 마무리했으며 매뉴얼 와인딩 칼라버 1065로 40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8천원대, 문의 02-3446-0088

비블리프 아델 스위트 핑크 워치 브랜드의 시그니처 워치로, 원형 다이얼에 장식한 러키 참이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며 화사한 광채를 드러낸다. 지름 21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라운드 컷과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장식했고, 화이트 골드 다이얼에도 다이아몬드를 스노 스텀했다. 한정하는 화이트 골드 참이 포인트이며 퀴츠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7천원대, 문의 1668-1906

블랑팡 우먼 울트라 슬림 워치 기존 칼라버의 밸런스 휠 소재를 실리콘으로 바꿔 사파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무브먼트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지름은 29mm, 여기에 화이트 오스트리치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한 느낌을 닮았으며 배젤과 라그 그리고 다이얼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극대화했다. 울트라 슬림이라는 이름답게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를 자랑한다. 4천원대, 문의 02-6905-3367

카르티에 배누아 알롱제 워치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다이얼 위로 브랜던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검 오양의 블루 스틸 핸즈와 토포 알라게이트 스트랩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핑크 골드 아크다운 버클의 조화가 클래식하면서도 화려했다. 케이스는 세로 47mm, 가로 21mm로 미디엄 사이즈다. 7천원대, 문의 1566-7277

파이제 포제션 워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다이얼과 배젤을 정육각형 세팅하고 유쾌한 디자인 코드로 표현했다. 지름 29mm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는 총 1백22개, 다이얼에는 총 1백4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자체 제작 589 퀴츠 무브먼트를 탑재했고, 알라게이트 스트랩은 셀프 교체 기능하도록 제작했다. 3천원대, 문의 02-3479-1802

타파니 칼라버 워치 재즈 시대의 화려한 이브닝 시계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눈부신 광채가 돋보이는 타원형 케이스는 세로 34mm, 가로 21mm로 다이얼과 배젤에 4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8K 화이트 골드 다이얼 위에도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했고, 퀴츠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블랙 사틴 스트랩을 더했다. 19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클이 세련미를 더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에디터 장우연

wonderful time

손목 위 시간을 확인할 때마다 반짝이는 그 빛이 아름답다. 다이아몬드 폴 파베 다이얼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the ultimate word

하이 주얼리의 주인공은 스톤이다. 창의적인 디자인과 결합한 스톤은 그 가치를 배가하며 때를 기다린다. 시간이 흘러 그 주인이 바뀌어도 보석은 영원하다.



영족과 귀족, 상류사회 인사, 음악의 여배우나 오페라의 대바 등 유명 인사들의 성공과 우정, 사랑과 질투에는 언제나 보석이 함께했다. 20세기에 와서 보석은 부와 명예의 과시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아이기와 관계를 담고 있는, 교감을 나누는 오브제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위 1개월 만에 왕위를 잃은 이탈리아 사보이 왕가의 마지막 왕을 베르토 2세에게 할머(미르케카타 왕비가 몰락준 보석들은 잊히는 기운에 대한 지존 상)였다. 시교계의 왕왕이자 에디터였던 에디터 펠로스에게 빌클리프 아델의 보석들은 자신을 살아 있는 예술 작품으로 빛내기 위한 무기였고, 먼저 공작부인에게 까르피에의 에메랄드 반지는 환영받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당시 까르피에가 바그다드에서 구입한 콜롬비아산 에메랄드는 40캐럿이 넘는 크였다. 이만한 크기의 보석을 구입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까르피에는 에메랄드를 2개로 나누었고, 그중 하나(19.77캐럿)를 에드워드 8세가 구입해 아내가 될 시프소스 부인의 약혼반지를 만든 뒤 'We are ours now'이라는 하나라는 글을 새겼다.) 귀환 원석을 취하고, 그것을 가장 화려하게 하는 디자인을 뽑아내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주얼리를 갖는 것은 소수만의 특권. 세계적 경제 회사 소대사의 보석 스페셜리스트였던 스테파노 피피와 알렉산드라 로즈는 경매에서 가격이 높은 보석은 희소성 있는 원석과 창의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에 담긴 이야기가 큰 역할을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얼리 매장에서 선보이는 하이 주얼리는 1천 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 원석이나 고갈되고 있는 바산산 파운 블러드 루비 등 희소성 있는 원석을 주인공으로 삼아 그 가치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뽑아내고, 딱 한 파산만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다. 다른 고객이 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더라도 그 컬러와 크기, 형태, 질감, 밀도까지 일치하는 원석을 다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다. 1년 후, 5년 후 또는 10년 후에도 채굴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을까. 몇 년 사이 국내 하이 주얼리 시장은 최근 눈에 띄게 성장했다. 디자인을 입은 원석, 그 가치를 아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상층의 목적도 있다. 기부할 수 없는 매장에 꼭 빠진 국내 컬렉터들을 만나기 위해 올해도 주얼리 매장의 다양한 하이 주얼리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지난 1월 2백 점이 넘는 볼가리의 하이 주얼리가 한국을 방문해 VIP를 만났다. 희소 가치가 높은 바산산 루비, 그중에서도 컬러가 가장 또렷한 피존 블러드 루비를 세팅한 50억 원대 링이나, 40억 원대 실론 블루 사파이어 네크리스가 인기를 끌었다. 매년 새로운 테마로 오트 쿠티르 패션쇼 때 파리에서 하이 주얼리를 선보여온 까르피에는 하이 주얼리 3백50점을 일주일 동안 한국으로 모셨는데, 그중 1백여 점이 넘는 작품들도 같은 주얼리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도 있었다고 한다. 프레드의 하이 주얼리도 작년 11월, 60점이 국내 고객을 만났다. 6억~8억 원대 제품들은 빈종과 판매 모두 매우 성공적이었다. 올 4월에는 사벨의 트위터 드 소재를 하이 주얼리로 표현한 트위터 드 사벨 컬렉션이 일주일 정도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

세계를 돌며 VIP를 만나는 하이 주얼리는 자신을 원하는(구입하려는) 고객이 있으면 그 길로 투어를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재장비를 한 후 고객 품으로 달려간다.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되는 이 시간, 고객은 실제로 가까이 가 체험을 즐길 듯하다. 보고 싶어도 쉽게 볼 수 없고 국내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다. 갖고 싶어도 쉽게 기질 수 없는 국내에 도착 전부터 나라 고객이 먼저 구입할 수도 있다. 하이 주얼리는 그래서 더 마음을 간직한다. 어쩌면 우리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에디터 장우연



1 올 6월 한국을 찾을 예정인 프레드 프리터 우먼 컬렉션의 하이 주얼리 라인. 루블라이트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2,3 지난 1월 한국에서 첫선을 보인 까르피에의 [사틴] 워치 하이 주얼리 피스. 스텀과 동등 그리고 고대 건축물이나 신화 속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루블라이트와 스텀,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주. 페르 네르코스와 링. 4,5 골드와 다이아몬드를 손으로 만 스코틀랜드산 울처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분할 기법을 개발했다. 오직 사벨 트위터에 한정된 첫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총 45개의 특별한 피스들로 이루어졌다. 6,7 정열한 로마 바르코 예술과 건축 유산에서 영감을 받은 볼가리의 바르코 하이 주얼리 컬렉션. 전 세계에서 공수한 화려한 스톤을 로마 볼가리 시그니처 워크숍에서 장인들이 직접해 완성했다.



바이네 슬리브리스 그린 드레스,
그린 컬러의 플랫폼 펌프스, 비즈
네크리스, 오른팔에 착용한 주얼
장식의 브레이슬릿, 왼팔에 착용한
그린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원손의 그린 링 1백25만5천원
모두 보타가 베네다.



Role Play

그 어느 때보다 반갑고 신선하다. 새봄, 뉴 트렌드.
photographed by **jung ji eun**



(왼쪽) 라이트 블루 컬러 코트, 아이보리 컬러 톱, 레더 스커트, 둘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른쪽) 슬리브리스 형태의 레더 코트, 아이보리 컬러 톱, 레더 스커트, 둘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왼쪽) 로열 블루 컬러 트렌치코트 3백19만원, 마메이드 테일 프린트 보다수트 가격 미정, 로열 블루 컬러 정프수트 2백45만원, 블랙 레더 부츠 3백75만원 모두 **비버리**. (오른쪽) 로즈 핑크 컬러 뷔스티에 힐 드레스 가격 미정, 블랙 레이스업 부츠 1백20만원 모두 **알렉산더 맥퀸**.



주얼 장식의 오버사이즈 후디 2백70만5천원, 롱 슬립 드레스 가격 미정, 레드 컬러 롱 삭스 47만5천원, 체인 장식의 블랙 펄프스 가격 미정, 주얼 장식의 글러브 가격 미정, 체인 형태의 슬퍼 네크리스 6백15만원 모두 **자랑시**.



베이지 컬러 오버사이즈 코트
 6백만원대, 네크라인 채진 장식의
 프린팅 티셔츠 1백만원대, 그레이
 컬러 와이드 팬츠 2백만원대,
 화이트 레이스업 슈즈 가격 미정,
 블랙 컬러 오버사이즈 벨트 가격
 미정 모두 **루이비통**.



(왼쪽) 블랙 컬러 편칭 니트 톱 1백30만원대, 옐로 컬러 편칭 톱 1백60만원대, 그레이 컬러 벨티드 스커트 5백만원대, 핑크 슬링백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오른쪽) 케이프 형태의 화이트 코트, 레퍼링 로고 장식의 베이지 톱, 베이지 컬러 스트레이트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왼쪽) 코튼 트윈드 소재의 재킷, 크레이프 드 신 소재의 프린트 정프수트, 메탈 소재의 실버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오른쪽) 크레이프 드 신 소재의 프린트 드레스, 블랙 스트랩 샌들, 펠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슬리브리스 형태의 화이트
컬러 니트 드레스 2백만원대,
라이트 블루 컬러 핏프스
1백만원대 모두 **펜디**.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이영**
모델 **최아라(Aile Company)**,
클로이(Aile Company)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에르메스 02-542-6622
샤넬 080-200-2700, chanel.com
일렉신더 맥퀸 02-6905-3472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프라다 02-3218-5331
펜디 02-514-0652
루이 비통 02-3432-1854
자형시 02-546-2790
버버리 080-700-8800



부드러운 가죽 보드에 볼륨감 있는 필소매를 매치한 바이커 재킷, 필스카트, 조각적인 엔틱 스타일 이어 컵 모두 알렉산더 맥퀸.

볼륨감 있는 소매가 특징인 오픈 화이트 칼라 포플린 셔츠 드레스, 미치 주얼리 같은 유기적 형태의 손잡이를 더한 주얼 사일 백, 엔틱 스타일 이어 컵 모두 알렉산더 맥퀸.

come back home

형태, 실루엣 그리고 볼륨. 알렉산더 맥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세라 버턴은 껍질을 발라내고 본질만 남긴 옷, 그 속에 담긴 뼈대의 아름다움에 집중했다. 패션은 시대상을 반영하기 마련. 혹독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한번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분주한 관계로 가득 찬 세상을 꿈꾸며 런던, 집으로 돌아온 그녀의 2021 S/S 컬렉션에 엠베서더 전지현이 함께했다.

photographed by **an joo young**

● sponsored by **Alexander McQueen**



얇게 파인 네크라인과 힐 투알 프린트 스카트의 드레이프가 특징인 드레스, 콤팩트한 앙글리시 리브 짜임 크롭트 코룬 니트 톱, 가장자리에 포인트를 준 원형 프레임 선글라스, 조각적인 언더크 실버 이어 컵 모두 알렉산더 맥퀸.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헤어 백종권
메이크업 최사노
스타일링 황정원
디렉터 최지영



time together

우수한 성능과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섬세한 디자인. 1백73년간 쌓아온 오메가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수작을 한데 모았다. 같은 듯 다르게, 다른 듯 조화롭게 연출하기 좋은 이상적인 커플 레이어링 아이디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드 빌(De Ville)

클래식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대변하는 오메가의 대표 컬렉션. 높은 정밀도와 더불어 미학적 가치를 함께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포켓 워치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코-엑시얼이라는 혁신적 기술력과 감도 높은 디자인이 결합된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드 빌 트레저 라인은 미려 케이스 백 같은 실용적인 면모도 함께 갖췄다.



컨스텔레이션(Constellation)

오메가의 유서 깊은 전통상에 기반해 현대적·미학적 요소로 완성한 이 컬렉션은 별에서 영감을 얻은 빛나는 아름다움을 전한다. 별점 위의 '그리프스' 또는 '물러'로 알려진 상징적인 모양이 특징으로, 시대를 초월하는 우아한 디자인과 최첨단 무브먼트가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스피드마스터(Speedmaster)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첫발을 디딘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 오메가의 자랑스러운 수작이다. 문위워치는 각별한 애정으로 유명한 이 컬렉션은 무브먼트 칼리버 321을 필두로 거듭 진화해 지난해 2020년 칼리버 3861을 적용한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와 실리콘 s14 밸런스 스프링 장착 등 다양한 혁신 기술과 함께 개선된 크로노미터 성능과 정확성으로 87지마스터 크로노미터 테스트를 통과하며 명불허전의 기술력을 입증했다.



(위부터) 드 빌 트레저 쿼츠 36MM 세드나 골드 케이스 측면의 유려한 곡선을 따라 세팅한 다이아몬드 장식이 특징이며, 크라운에는 레드 하이라임으로 폴리싱 처리한 싱글 다이아몬드를 더해 우아함을 더했다. 배터리의 수명을 극대화하는 '롱 라이프' 기능을 장착한 쿼츠 무브먼트 칼리버 오메가 4061로 구동하며, 수심 30m의 생활 방수 기능을 제공한다. 1천2백20만원. 드 빌 트레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40MM 그레이 레더 스트랩 버전으로 출시하는 케이스 지름 40mm 모델. 그랑 쥐 방법으로 완성한 그레이 돌링 에-쿠엥 다이얼에 18캐럿 세드나 골드로 제작한 핸즈와 인덱스를 올렸다. 무려 72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춘 칼리버 8929로 움직인다. 2천1백만원. 컨스텔레이션 링 컨스텔레이션 워치의 아이코닉한 '물러' 다이얼을 적용한 18K 옐로 골드 링은 1백78만원, 링 중앙을 따라 3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은 3백78만원.

© sponsored by OMEGA

(위부터) 스피드마스터 문위워치 프로페셔널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크로노그래프 42MM 케이스 지름 42mm 크기의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블랙 다이얼에는 세컨즈 서브다이얼과 30분 카운터, 12시간 카운터로 칼리버 리케이션을 완성했다. 스텝휠 크로노그래프 기능은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3861로 구동하며, 최고의 정확성을 제공하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장착해 완벽한 정확성을 자랑한다. 4천5백만원. 컨스텔레이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29MM 여성용 스펙에 안착하는 아름다운 사이즈가 돋보이는 모델. 세드나 골드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우아한 디자인으로 하이엔드 품격을 드러낸다. 탁월한 정확성을 입증받은 마스터 크로노미터 기능을 갖춘 칼리버 8701을 사용하며, 투명한 사피어 크리스탈을 적용한 백 케이스를 통해 흠잡을 곳 없이 아름다운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다. 약 5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수심 50m 방수 기능을 갖췄다. 3천7백50만원. 컨스텔레이션 링 아이코닉한 '물러'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화이트 골드 링은 1백59만원, 0.25캐럿의 38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은 3백32만원. 에디터 **이유이**

fairy ladies

소녀의 순수함과 여인의 우아함이 공존하는 뉴 클래식 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간결한 사다리꼴 실루엣이 균형을 이루는 크리스탈 백, 송이치 가죽에 부드러운 쿠메오 베이지 컬러를 적용해 자연스러운 품위를 연출한다. 2백60만원대 **프라다**.
 싱그러운 레몬 컬러가 기본 좋은 에-치를 전하는 스튜디오 백, 최상의 송이치 가죽과 유려한 실루엣에서 세심한 디테일의 매력이 느껴진다. 2백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기모**.
 각진 스트러처 실루엣과 견고한 레더 핸들, 수직형 로고 버클의 조화가 돋보이는 라이트 블루 소 바비에 백 미니 3백47만원 **로저비비에**.
 클래식 패턴이 클래식한 인상을 전하는 올림 백, 랭스킨 가죽에 감각적인 스카이 블루 컬러를 입혀 우아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내뿜는다. 가격 미정 **샤넬**.
 네크리스처럼 플랩을 감싸는 체인 장식과 도금한 황동 벨 마리 장갑장자로 주얼러의 면모를 한껏 드러냈다. 피치 컬러 나파 가죽으로 제작한 불가리 세르펜티 포에버 스몰 맥시 체인 등 **한들 백** 3백50만원대 **불가리**.
 부드러운 컷 레드 소재와 오버사이즈 퀸팅 패턴, 세련된 메탈 장식의 하나인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스토리 백, 앞면 손잡이에 손을 끼워 맥퀸만의 느낌이 살아 있는 클러치로 활용될 수 있다. 3백39만원 **일렉신더 맥퀸**, 에디터 **이주이**

프라다 02-3218-5331 **살바토레 페라기모** 02-3430-7854 **샤넬** 080-200-2700, chanel.com **로저비비에** 02-6905-3370 **불가리** 02-2056-0171 **일렉신더 맥퀸** 02-6905-3472

이 스타일은 정음우



튼 다문된 감각적인 컬러와 고급스러운 소재의 믹스 매치가 돋보이는 하이퍼라이트(hyperlight). 슈즈 측면과 어퍼, 라버 솔에 로고를 더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뒤쪽에는 스트레치 소재의 루프 디테일이 있어 슈즈를 신고 벗기 용이하다. 58만원 **호건**.



러닝화의 실루엣을 차용한 도시적인 디자인의 하이퍼라이트. 메시, 레더, 스웨이드 등 다채로운 소재와 컬러를 적용한 패턴이 조화를 이루 입체적이다. 밑창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쿠션감을 더하는 스티트 디테일의 고무 트레드를 적용했다. 화이트 컬러 보드에 레드 포인트로 경쾌함을 더한 모델 58만원 **호건**.

sponsored by HOGAN

at your pace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정신을 담아
 기능적인 우아함을 선보이는 하이엔드 풋웨어
 브랜드 호건의 2021 S/S 시즌 남녀 스니커즈.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살버, 블루, 그린 톤이 조화를 이룬 여성용 스니커즈 레벨(Rebel),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두께 5cm의 창가한 라버 솔은 가볍고 유연해 뛰어난 착화감을 보장한다. 슈즈 측면에는 브랜드 고유의 H 모노그램을, 어퍼에는 로고 정성을 더해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두드러진다. 58만원 **호건**.



캐주얼하고 패셔너블한 무드로 즐길 수 있는 여성용 스니커즈 레벨, 세련게 디자인한 곡선형의 브랜드 로고 H 모노그램과 슈즈 뒤쪽의 핑크 컬러 레더로 포인트를 줬다. 은은한 핏과 크랙(crack) 효과를 구현해 더욱 멋스럽다. 함께 매치한 핑크 컬러 슈 레이스에도 글러디 디테일을 가미해 시어링스했다. 58만원 **호건**, 문의 02-3438-6234 에디터 **이혜미**



COZY & bright

경쾌하고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침실 스타일링 아이디어.

1 클래식한 우드 물결이 문방호는 모나 프레임, 세로형 더블 헤드보드에 베이지 컬러 패브릭을 매치해 트랜드한 분위기 연출에 제격이다. 가격 미정 시몬스. 문의 1899-8182 **2** 구슬 어시스턴트 7등을 탑재한 자사 첫 시 스피커 베이스운드 1 GVA 내추럴. 16.2X32.7X16.2cm, 1백99만원 **방안용등** 시몬스. 문의 02-518-1380 **3** 상징 기법(Intarsia)으로 가족 조각을 정교하게 조각한 후 잔편을 번삭(burnishing) 처리한 데오렐 H 카자르 박스. 19X19X5cm,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4** 실제 회화 작품을 프린트해 아트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기분을 누릴 수 있는 발레리나 원형 러그. 150X150cm, 29만원 **트루베르**. 문의 010-9461-4403 **5** 내부릴 에-렐로 처리한 무명색 테라코타 소재 칼라(Kala) 화병. 상단에는 슬리드 오크 핸들을 다하고, 천연 카우하이드 소가죽으로 만든 끈을 장식했다. 가격 미정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6** 핀트의 유망 유리공예가 오바바 토야(KOva Tokka)가 디자인한 에이스트 칼라(Kastehelmi) 캔들 홀더 4인원 **이탈리아**. 문의 02-749-2002 **7** 블루·블랙·베이지 톤이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동시에 화려한 우드의 식물 프린트 쿠션 가격 미정 **힐프 로렌 홀 칼렉션**. 문의 02-6004-0133 **8** 프랑스 출신 예술가 막스 앙그렘(Max Ingrand)이 디자인한 화이트 테이 블랜드, 베이스 부분과 랩프 세이 드가 하나 이상의 광택을 갖춰 조도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가격 미정 **폴나 아이데 by 텍사스**. 문의 1670-1950 **9** 디자인 스튜디오 로 에지스(Raw Edges)와 합판베인드 루이비통 오브제 노이드 컬렉션의 돌스 체어 리미티드 에디션. 65X65X45cm, 가격 미정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10** 투명한 그린 크리스탈과 무광 골드 톤의 플라팅 메탈 줄기로 구현한 유칼립투스 오브제 1129만원 **스외브로스키**. 문의 1661-9060 **11** 마릴린 디자인의 니켈 보디 플로어 램프 가격 미정 **힐프 로렌 홀 칼렉션**. 문의 02-6004-0133 에디터 **이혜미**



city scent

포근한 봄날, 도시의 오후를 떠올리게 하는 섬세하고 농밀한 남자의 향기.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찌 길티 러브 에디션 2021 부르 올드** 심플한 이탤리언 레몬 향으로 사치해 달콤한 허니를 가미한 화이트 플로럴 향조가 오후의 플라잉 맨슈루트로 이어져 한층 진하고 풍부한 꽃향기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카사노바가 러브 레테에 향을 더할 때 사용했던 프린트 라벤더 향이 향긋한 포인트를 더해주고, 드디어한 시타우드의 파슬리로 마무리한 결과 은밀하고 관능적인 남성의 여운을 남긴다. 90ml 13만2천원. 문의 02-3452-1921

에르메스 H24 오드투왈렛 도시의 자연을 표현하고 싶었던 조향사 크리스틴 니아렐의 바람을 담은 향. 클라리 세이퍼를 중심으로 어우러진 나르시스 맨슈루트와 스킨라벤이 감각적이고 세련된 자연을 그린다. 여기에 로즈우드가 부드러운 진함을 만들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여운이 깊든다. 100ml 15만6천원. 문의 02-3479-1368

돌 포드 튜베르조 뉴 남녀 모두에게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플로럴 향기. 투베르조와 재스민으로

로 전개되는 우아한 향조에 티무르 페퍼와 스웨이드 어드의 육감적인 향을 더해 중성적인 향기를 완성했다. 우디 파슬리와 에가우드 머스크가 절정에 다른 향을 포근하게 덮어 향의 여운을 감미롭고 은밀하게 지속시킨다. 50ml 41만8천원. 문의 02-6971-3211

자침시 오이조 리브 드 자침시 화이트 피츠포럼으로 시작하는 우아한 플라워 향에 스프라잉 카 페퍼를 조미료처럼 더했다. 이어서 바닐라 맨슈루트와 부드러운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활기 넘치는 버지니아 시타우드의 과잉 우드 에센스로 마무리되어 시크하고 매력적이다. 100ml 26만원대. 문의 080-801-9500

메종 마르자겔라 버블 비스 EDT 시트레 플로럴 계열의 깔끔한 향조로 따뜻한 목조에서 거품 목욕을 할 때처럼 편안한 순간을 향으로 표현했다. 톱 노트를 비베타향을 어드드로, 미들 노트를 코코넛 밀크 어드드로 구성한 결과, 이어서 로즈 수퍼 에센스와 화이트 머스크가 온몸

을 감싸듯 포근하고 편안한 진함을 전한다. 100ml 15만원. 문의 080-363-5454

아쿠아 디 페르마 콜로니아 류튜라 자연을 떠올리는 그린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 클라리 세이저를 주재료로 택했다. 여기에 레몬과 자몽, 베르가모트를 더해 스텔이 가득한 정원을 가니는 듯한 상쾌한 느낌을 안겨준다. 이어지는 핑크 페퍼와 라벤더의 조합이 신뜻하고 즐거운 기운을 전한다. 50ml 13만8천원. 문의 02-6905-3568

산타 마리아 노벨라 아쿠아 디 콜로니아 로사 노벨라 새롭이 깨어나는 봄의 모습을 그린 매혹적인 사도 따뜻한 플로럴 향. 백합과 은방울꽃으로 조합한 플로럴 어드와 어우러진 레몬과 라임의 경쾌한 시트러스 톱 노트로 시작해, 청량한 오레가노의 허브 향이 비행을 이어준다. 이어서 이끼와 나무 속으로 스며든 듯한 은은한 페퍼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활력 가득한 심포니를 이룬다. 100ml 21만8천원대. 문의 1644-4490 에디터 **이주이**

editor's Pick

뉴 노멀 시대를 위한 새로운 뷰티 리추얼.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데코르테 메이크업 닷컴 에디션 수퍼 힐 밤 #사쿠라엔디 마스크 속에서 바깥 마르고 잠점 생기를 잃아가는 입술에 오아시스 같은 제물, 수분 막이 가라앉진 입술 표면을 커버해준다. 본연의 입술 같은 자연스럽고 투명한 컬러 감 덕분에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걱정이 없다. 3.5g 3만2천원 대. 문의 080-588-3111_by 에디터 장라윤

샹카이 힐 샤프 비어블라이 컬렉션 #클로버 컬러감, 지속력, 편안함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립 아티팩. 풍부한 허알루론산 성분 덕분에 보습 효과도 상당하다. 동을 실형은 물론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프랜차이즈 제품이다 판매 수익금 일부는 나비 보호 활동에 기부하는 어도모로 착한 아티팩. 2.5g 7만5천원. 문의 070-4370-7511_by 에디터 이주이

나스 클리워 인 볼륨 컬렉션 리아트 리볼루션 세럼 파우더 매트한 볼륨 케이스 대신 강렬한 레드 컬러 파우더를 입은 리아트도 에디션 프레스도 파우더. 내장된 얇고 부드러운 파프 또는 브러시로 투명한 포플러를 가볍게 쓱 바르면, 금세 번들거림이 줄어든다.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사용하면 아주 미세한 필 인자가 얼굴에 안착을 부여하는 동시에 건조까지 잡아주는 느낌도 리 활용도가 높을 듯. 10g 5만 5천원대.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이혜미

에스티 로더 퍼펙션리스트 프로 인텐스 브라이트닝 에센스 앰플 조금 피곤했다고, 신경 좀 썼다고, 스트레스 살짝 받았다고 금세 다스릴 수 있는 40대 중반. 최첨단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 바타닌 C와 더를 담은 앰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다 하니 금상첨화. 한 병에 10회 이상 사용 가능하다. 10mlx4, 16만5천원. 문의 02-6971-3212_by 에디터 장라윤

몽클로스 리밸런싱 샴푸 스킵스 스킵스 지성 두피에 모발까지 기어올라 욕실에 배치 해두고 사용하는 샴푸만 여섯 가지에 이른다. 그중 가장 최근에 들어놓은 것이 차 연주율을 표방하는 헤어 & 보디케어 브랜드 몽클로스의 제품. 두피의 따림을 감 소시키는 우수한 세정력, 탈모를 방지하는 영양 공급 기능을 동시에 갖춰 단 한 번의 샴푸만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500ml 2만9천원. 문의 02-540-1735_by 에디터 이혜미

실큰 페이스타이트 3.0 자극 없이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홈 케어 제품. 바이올린 고주파 에너지를 주입해 LED 레드리프트가 콜라겐 생성에 관여한다. 약 1cm 열에 4가지 고주파 에너지를 LED 레드리프트 피부 속 진동까지 도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피부에 밀착해 움직일 때만 작동하는 센서가 있어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다. 50만원. 문의 080-246-1234_by 에디터 이주이

스킨인드 맥직 10 글로우 스틱 스틱 제형이라 속속 퍼버리만 해도 초간단 베이 스 메이크업 완성. 최적으로 배합한 열 가지 배피 추출물이 피부에 자연스러운 윤 광을 선사한다. 주름 관리는 물론 미백 기능도 갖춰 스킵케어 효과까지 특특히 누릴 수 있다. SPF 50+ / PA++++ 수지의 자외선 차단 기능 역시 겸비해 상중 으로 케어하기 데 더할 나위 없는 제품. 10g 3만2천원. 문의 031-718-2111_by 에디터 이주이

샹엘 기브라젤 샹엘 바디 크림 향수보다 덜 직관적인 방편으로 향기를 레이아웃할 수 있는 프라미디언스 바디 크림. 고급스러운 골드 커버를 입은 순간 풍부한 플로 릴 향이 바로 느껴진다. 연한 진로빛 포플러는 오일같이 느껴지는 리치한 텍스처 로, 스킵케어 바르면 마치 보화같이 생겼던 듯한 기분이다. 150g 12만9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_by 에디터 이혜미

조 말론 린던 스타일즈 포피 코롱 인텐스 부드러운 아이리스 꽃에 보리, 통가 빈, 무 효과 등을 더해 완성한 매력적인 향. 몸도 마음도 자꾸 더운다면 어느 날 오후, 중 요한 미팅 전에 살짝 뿌렸더니 마치 달콤한 캔디 가루에 목 빠졌나 나온 듯 산뜻하 게도 기분 좋아졌다. 예상치 못하게 매력적인 달콤한 플로릴 향이다. 100ml 26 만원. 문의 02-3440-2750_by 에디터 장라윤

랑콤 클리리피코 브라이트닝 밀키 크림 피부 갈색이 수분을 공급하면서 모공까지 조여주는 기능을 담았다. 주로 아침 세안 후 바르는데 정말 가볍고 얇은 텍스처라 금방 스며든다. 리치한 텍스처를 싫어하거나 볼러럼 술술 부는 3, 4월에 알맞은 가벼운 제형을 찾는 사람에게 인성맞춤이다. 50ml 13만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장라윤

메이크업 포어 워터본 파운데이션 #Y218 수분 함량이 78%에 가까운 촉촉한 켈 리 텍스처가 피부에 밀착해 가볍게 스며든다. 마스크도 묻어 가지 않아 하루 종일 무전립 입은 피부 연중에 제자다. 자연스러운 커버리지가 남신도 부담 없이 사용 할 수 있다. 40ml 6만원대. 문의 080-514-8942_by 에디터 이주이

닥터지 약산성 클렌징 오일 10년 가까이 오일 타입 클렌저만 사용해도 에디터가 점 한 다양한 제품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뷰티템. 우선 너무 묵직해도,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텍스처의 워터리 오일 포플러와 산뜻한 세안이 가능하다. 피부 pH 지 수와 유사한 로조힐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의 자연 유래 성분을 담고,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완료해 피부에 어떤 자극도 느껴지지 않는다. 8만 원 진한 메 이크업도 실시간으로 녹여내는 것이 눈에 보일 만큼 세정력은 우수한 편. 200ml 2 만5천원. 문의 1811-9415_by 에디터 이혜미

스쿠 시그니처 컬러 아이즈 #03 샌드 베이직 클렌저 브라운 자연스럽고 우아한 볼 메이크업을 위한 내추럴 컬러로 팔레트를 구성했다. 오일 코팅한 스노 파우더 텍스 처가 가루 날림 없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밀린다. 스광으로도 선명하게 발색되는 컬러 가 일품이다. 6.2g 9만원. 문의 02-6905-3369_by 에디터 이주이



* 장라윤(02-6971-3212), 이혜미(02-564-7700), 이주이(031-718-2111), 박민지

BEAUTY



샤넬 르 블랑 세럼 특별한 성분, TXC™ 분자가 새로운 성분들과 결합해 화이트닝, 진정 그리고 피부결 개선 총 세 가지의 강력한 효과를 선사한 다. 가장 완벽한 화이트닝 효과를 제공해 빛과 어 우라지는 맑고 투명한 장막 빛 광채로 빛나는 피부 를 완성해준다. 문의 080-332-2700



실큰 페이스타이트 3.0 글로벌 홈 케어 뷰티 디바이스 전문 브랜드 실큰 코리아가 유·무선 듀얼 사용이 가능한 고주파 미샤자미 페이스타이트 3.0을 출시한다. 바이올과 고주파 에너지(RF), LED 레드리프트, 열에너지(R) 세 가지 기능이 동시에 적용해 피부 속 탄력을 회복시킨다. 문의 080-246-1234



엘리브 듀얼 케어 오일 & 비온스 크림 지·복합성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탄력, 영양 케어 신제품 엘 리브 듀얼 케어 오일 & 비온스 크림을 출시한다. 볼러름에 사용하기 좋은 캡슐 오일과 보습 크림을 투 인 원 듀얼 용기에 담은 제품으로, 가볍고 싯트 한 사용감이 특징. 트러블과 그로 인한 자극, 늘어 난 모공, 탄력 저하 등 복합적인 피부 고민을 해 준 다. 복합성 혹은 수부 부족형 지성 피부인들이 매 끄럽고 탄력 있는 결을 되찾을 수 있는 성분과 효 능에 집중했다. 문의 02-543-0509

랑콤 클리리피코 브라이트닝 에 멀전 클리리피코는 크리стал림 투명한 피부 톤과 결을 한 번 에, 속부터 환하게 밝히는 수 분 브라이트닝 케어를 도와주는 스킵케어 라인. 그중 브라 이트닝 에멀전은 밀크 타입 텍스처가 피부에 닿는 순간 빠르게 흡수되어 매끄러운 마 무리감을 선사한다. 속부터 투명하게 밝히는 브라이트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의 080-022-3332

SHOW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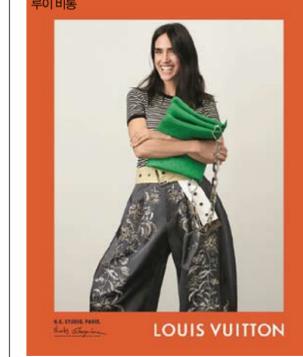
마이클 코어스 브레드쇼 백 새로운 에센셜 아이템, 브레드쇼 백을 선보인다. 클래식한 디자인 위에 실 버 푸시록 버클과 플랩으로 포인트를 주어 깔끔하면 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인다. 천연 소가죽을 사 용해 온전한 광택과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할 뿐만 아 니라 휴대편, 지갑, 파우치 등 필수 소지품들을 위한 넉넉한 내부 수납공간을 갖췄으며, 내부 앞쪽에도 별도의 패달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다. 문의 02-546-6090

보타가 베타 트라이앵글 백 2021년 스프링 컬렉션인 샬롱 01(Salon 01)에서 다양한 소재와 사이즈의 트라이앵글 백을 선보 인다. 핸드백은 모던 한 실루엣과 시그니처 트라이앵글 손잡이 디테일이 특 징. 특히 이번 시즌에는 레디투웨어와 동일한 소재의 버 블 부클레(Bubble Bouclé)를 활용해 강렬한 컬러 대비 와 부드러운 입체적인 니팅 기법으로 질감과 구조적인 미를 표현했다. 레드, 블루 그리고 핑크 총 세 가지 컬러 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7682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프리다 갤러리인쇄화점 광고점 오픈 렘 콜하스의 디 자인 스튜디오, OMA가 디자인에 참여한 갤러리아 백화점 광고점은 모던한 외관이 특징이다. 광고점 2 층에 위치한 2백65㎡ 크기의 프리다 매장에서는 여 성과 남성용을 위한 레디투웨어, 가죽 제품, 슈즈 그리고 액세서리를 만날 수 있다. 문의 02-3218-5331

에르메스 2021 봄여름 오브제 컬렉션 에르메스의 2021년 봄여름 오브제 프레젠테이션이 지난 2월 8~9일 이틀간 메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에서 진행되 었다. 올해의 에르메스 테마는 '에르메스: 휴먼 오딧 세이(Hermès: A Human Odyssey)'. 콜라주 아 티스트 펠나 픽션(Fenna Fiction)의 작품에서 영감 을 받은 특별한 오브제들을 선보였다. 문의 02-542-6622



IWC 어린 왕자 에디션 자름 46mm의 콤팩한 스테 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미드나이트 블루 컬러 다이 알, 블루 세라믹 소재 시터 링 그리고 백색의 발광 핸 즈와 인덱스가 눈에 띈다. 특히 받은 타임 존 기능 덕 에 바젤을 돌려 돌리지만 허번 손잡이 다른 시간대로 시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메커니즘은 무브먼트를 정지시키지 않고 동작해, 날짜변경성을 지니더라도 단 1초의 손실 없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문의 1670-7363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로건 레퍼시 컬렉션 2021년 봄여름 캠페인 니콜라 제스키에리가 독 창성을 담아 직접 연출하고 촬영한 캠페인을 선보인다. 다양한 하우스 액세서들이 스타일과 전년의 경계에 도전하며 루이 비통의 새로운 컬렉션에 찬사를 보냈다. 이 캠페인은 3월, 전 세계 매가전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 다. 문의 02-3432-1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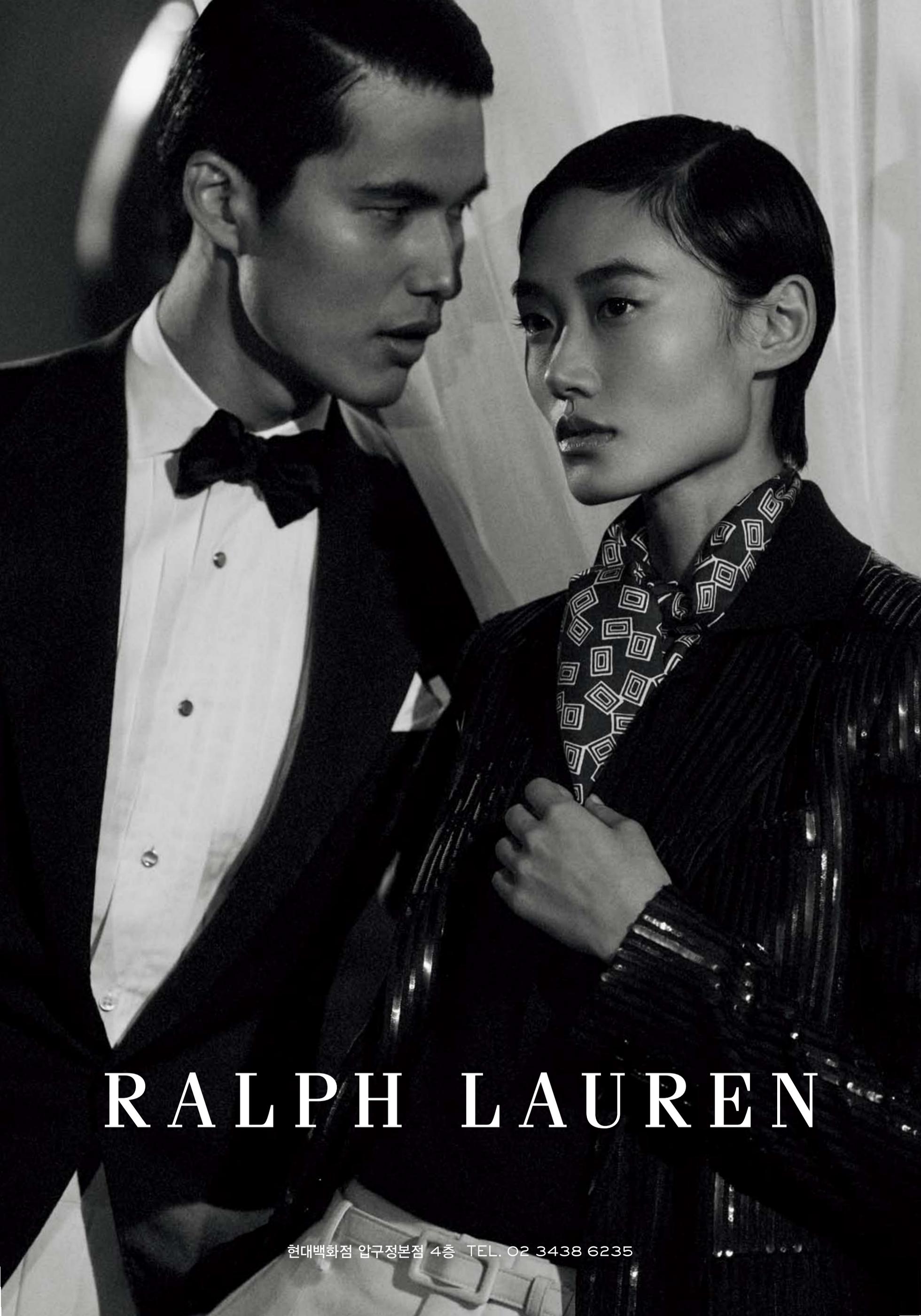
반클리프 아펠

오메가

스워브스키

FASHION

JEWEL & WATCH



RALPH LAUREN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4층 TEL. 02 3438 6235